

“솔직한 캐릭터 나와 많이 닮아...혼신 다했죠”

드라마 ‘지금부터...’ 23일 첫 방송 귀신을 부리는 미술사 돕는 순경 역 동료들 덕에 낯선 현장에 녹아들어 무명 선배들에게 희망·용기 주고파 무엇이든 도전, 6월 첫 정규앨범도



“연기라니, 정말 꿈만 같아요!”

트로트가수 김희재(27)가 그동안 발산해온 남다른 끼를 이제 안방극장에서 뽐낼 태세다. 23일 첫 방송하는 MBC 새 토일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을 통해 연기자로 데뷔한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연기자라는 호칭이 아직 쑥스럽기만 하다”면서 수줍게 웃었다. 그러나 연기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한 장면도 허투루 표현하고 싶지 않다”며 비장한 눈빛을 드러냈다.

●“낯설었던 연기 재미에 푹 빠져”

귀신을 부리는 미술사(박해진)과 순경(진기주)의 공조를 그린 드라마에서 신참 순경 역을 맡았다. 진기주의 파트너이자 무당(장하은)에게 한눈에 반하는 ‘열정 직진남’이다.

“첫 연지에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캐릭터가 저와 많이 닮아 부담이 확 줄었어요. 까불거리다가도 선배에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말할 줄 아는 솔직한 면모가 닮았죠. 27살로 동갑내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아주 달라요.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마음이 열리는 편인데, 캐릭터는 처음부터 맹렬하게 돌진하던데요.



트로트가수 김희재는 23일 첫 방송하는 MBC 토일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에 출연하기에 앞서 “첫 연기인만큼 시청자 분들이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를 남겼다. 사진제공 | 모코ent

하하하!”

지난해 여름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는 “왜 나를?”이라고 되물었다며 웃었다. 연출자 이형민 PD 앞에서 “깡 있게, 쫄지 않고” 치른 오디션이 합격의 비결이었다.

“제작현장에서 쓰는 용어부터 동선을 맞추는 일까지 전부 낯설었어요. 박해진 형과 진기주 누나 덕분에 빨리 적응했어요. 해진이 형은 ‘이런 각도가 눈빛이 더 잘 나와’라며 실질적인 노하우를 속성으로 전수해줬고, 기주 누나는 두 번째 만난 날 곧바로 ‘희재야, 안녕?’ 하며 킬링하게 인사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스터트롯 형제들 응원에 힘!”

2020년 트로트 오디션프로그램 ‘미스터트롯’ 톱7에 들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입대 후 가수의 길을 점으려고 마음먹은 순간 “마지막”이라며 제출한 오디션 참가 원서가 인생을 180도로 바꿨다.

“트로트가수의 활동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싶어요. 무명 때 편견 어린 시선과 설움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도 연기든, 예능 활동이든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실력 있는 선배들이 ‘김희재도 했는데!’라며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뿐이에요.”

임영웅, 이찬원, 정동원 등 “단체 문자메시지 채팅방에서 끊임없이 수다를 떠는” 동료들의 응원에 힘입어 6월 첫 정규 앨범도 내놓는다.

“기회가 닿는 대로 무엇이든 열심히 해서 팬 사랑에 보답할 거예요. 저의 도전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지켜봐 주세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감독’ 이정재도 세계로

첫 연출작 ‘헌트’, 내달 열릴 칸 영화제서 상영
첩보 스릴러물...정우성과 20년만에 호흡 맞춰



영화 ‘헌트’의 연출과 각본·주연을 맡은 배우 이정재. 사진제공 |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오징어게임’으로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른 이정재의 글로벌 행보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5월 18일(한국시간) 프랑스 칸에서 막을 올리는 제75회 칸 국제영화제를 통해 첫 연출작 ‘헌트’를 선보이는 그가 또 한 번 세계인의 시선을 겨냥한다.

이정재는 ‘헌트’를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서 소개한다.

스파이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안기부 요원들의 이야기를 그린 첩보 스릴러물 ‘헌트’로 감독 데뷔했다. 각본 작업에도 참여했다. ‘절친’ 정우성과 함께 주연하며 1999년 ‘태양은 없다’ 이후 20년 만에 연기 호흡을 맞췄다.

미드나잇 스크리닝 섹션은 비경쟁 부문이지만, 액션·스릴러·공포 등 상업적 색채 짙은 장르영화를 상영하며 해외 바이어들의 눈을 집중시킨다. 이에 따라 그가 칸 필름마켓에서 거둬들인 실적도 주목된다. 이미 프랑스 매체 TF1은 ‘헌트’가 “이번 칸 국제영화제의 큰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으로 올해 미국배우조합상과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드 등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이정재는 미국 대형 에이전시 CAA와 계약을 맺고 글로벌 행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제 ‘헌트’로 또 다른 성과를 낸 그는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승미 기자

연예뉴스 HOT 3

방탄소년단, 6월10일 새 앨범 발표 예고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이 6월 10일 컴백을 예고했다. 방탄소년단은 17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라스베이거스’ 공연에서 마지막 곡의 무대가 끝난 뒤 ‘우리는 방탄’(We are bulletproof), ‘2022.06.10’이라는 문구를 올리며 새 앨범 발표를 예고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 발표는 지난해 7월 ‘퍼미션 투 댄스’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방탄소년단은 9·10일과 16·17일 열린 4회 차 라스베이거스 공연을 통해 총 20만 관객들과 만나며 글로벌한 인기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투애니원, 7년 만에 완전체로 美 무대 달귀

걸그룹 투애니원이 1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유명 음악 페스티벌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에서 완전체로 무대에 섰다. 투애니원의 완전체 무대는 2015년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 이후 7년 만이다. 이날 무대는 리더 씨엘이 코첼라 페스티벌에 초청받은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씨엘의 무대 마지막 부분에서 공민지·산다라박·박봄이 깜짝 등장해 히트곡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열창했다. 투애니원은 2009년 데뷔해 ‘파이어’, ‘아이 돈 케어’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2016년 11월 해체를 발표했고 이듬해 1월 마지막 노래 ‘굿바이’를 내놨다.

반크, 세계에 ‘韓역사의 진실’ 알리기 캠페인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애플TV+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를 통해 일제 강점기 조선에 대한 일본 탄압의 역사와 일본이 왜곡한 한국의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반크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영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중국어 등 6개 언어로 제작된 ‘전 세계의 교실에 한국을 소개한다’(Bring Korea to the World Classroom)는 웹사이트를 통해 독도, 동해, 일제 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가 등 한국의 역사를 소개한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파친코’를 통해 일제 강점기 한국 역사의 진실이 세계에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한국인 한명 한명이 홍보대사가 돼 세계에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알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스크린 기대작 쏟아지고 대형 콘서트...대중문화계에도 ‘봄’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천만 감독들 미뤘던 신작 개봉 준비
25일부터 영화관 내에서 취식 가능

300명 규모 공연 사전 승인 사라져
합성·폐창 등은 규제 아닌 권고로

방송가 방청객 확대 현장감 극대화
제작발표회 등 행사 오프라인 전환

팝콘 먹으며 영화 보고, 대형 콘서트도 제한 없이, 방청객 실제 웃음소리가.

2년 1개월 만이다.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되면서 대중문화계도 반색하고 있다. 고사 위기에 처했던 영화계와 극장가는 개봉작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감염병 사태 이전 매출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 대면 공연이 거의 불가능했던 공연계도 각종 제한이 풀리면서 숨통을 트게 됐다. 방송가는 온라인으로 진행해온 행사를 대면으로 전환하면서 방청객 맛을 준비에 돌입했다.

●극장 정상화 기대

극장가는 그동안 객석 띄어 앉기, 영업시간 제한, 신규 작품 개봉 연기·취소 등으로 관객이 크게 줄어들었다. 실제로 영화진흥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화산업 시장 규모는 2019년 2조5093억 원의 30% 수준인 지난해 1조239억 원에 그쳤다. 2억2668만 명이던 관객은 6053만 명에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됐던 대중문화계가 간만에 활기가 돌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 CGV에서 마스크를 쓴 채 영화 관람을 기다리는 관객들의 모습. 스포츠동아 DB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영화계와 극장가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17일 영화계에 따르면 각 배급사는 그동안 개봉을 미뤘던 한국영화 기대작의 개봉 준비에 나서고 있다.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류승완 감독의 ‘밀수’, 윤제균 감독의 ‘영웅’, 김한민 감독의 ‘한산:용의 출현’ 등 ‘천만 감독’들의 신작이 대기 중이다.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벌써 주목받고 있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 배우 이정재의 연출 데뷔작 ‘헌트’를 비롯해 마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대혼돈의 멀티버스’, 톰

크루즈의 ‘탑건:매버릭’, ‘쥬라기월드:도미니언’ 등 외화 블록버스터도 관객몰이에 나선다.

25일부터는 영화관 내 취식이 가능하면서 극장가는 그동안 매출 규모 비중이 컸던 매점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J CGV의 경우 2019년 매점 매출이 전체의 16.5%(3213억 원)에서 지난해 11%(813억 원)으로 급감했다.

●합성은 권고, 대형 콘서트 잇단 개최

공연 취소와 연기 등으로 대중음악 공연계 매출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90% 이상 감소한 만큼 ‘원상회복’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객석 띄어 앉기부터 관객수 제한, 콘서트 사전 승인 절차 등이 사라지면서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콘서트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관객 300명 이상 규모의 공연은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 실내 공연장은 좌석수 기준 50% 및 4000명 이내에서만 공연을 할 수 있었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고기호 이사는 “대부분 공연은 장소 대관 일정에 맞춰 최소 몇 달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거리두기 해제로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좌석이 늘어나는 만큼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합성이나 ‘폐창’ 등 그동안 규제 대상이었던 관람 행위도 권고 사항으로 바뀐다.

대학가 축제와 지방행사 등도 개최 가능성이 커지고, 팬들과 소통할 기회도 더욱 많아지면서 가수들의 컴백도 잇따른다.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케이팝 가수들도

비롯해 홍진영, 장윤정, 임영웅 등 트로트 가수들과 신인들도 대면으로 팬들과 만날 준비에 한창이다.

●방송가도 활기

각 방송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한해왔던 대면 무대를 더욱 늘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말 KBS 2TV ‘불후의 명곡’, tvN 개그프로그램 ‘코미디 빅리그’ 등 일부 프로그램이 재개한 방청 모객을 라디오프로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00여명 안팎으로 유지해온 방청객 규모도 더욱 늘린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청소년들이 불리는 음악프로그램은 당분간 감염병 확산 추이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한 방송사의 예능프로그램 PD는 “방청객 반응이 프로그램에 현장감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방청객과 소통을 그리워한 출연자들의 갈증도 풀릴 것”이라고 반가워했다.

제작발표회를 비롯한 드라마·예능프로그램 관련 행사도 오프라인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 3월 이후 방송 관련 행사는 대부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돼왔다.

MBC는 “22일 서울 마포구 삼암 사옥에서 새 토일드라마 ‘오늘부터, 쇼타임’ 제작 발표회를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취재진에 행사를 대면 공개하기는 처음이다. 다른 방송사들도 다음 달 행사 진행을 위해 장소 물색에 돌입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